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포르포르타주

사진 및 글: 이상훈

# 자전거는 Style이다

## 제1편

“자전거는 스타일이다”

언제부터 자전거를 하나의 스타일로서 생각을 하고 타고 다녔을까? 혹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 기본적인 운송수단 중 하나인 자전거를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생각해본다.



## <기획의도>

자전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초적인 운송수단으로써 기능을 해오고 있다. 예전 기능에 충실하였다면 현재의 자전거는 기능에 패션이 가미해진 자전거로써, 자전거 구매포인트 중 하나로 고를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어떤 기능보다 어떤 스타일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림1-일반자전거>



<그림2- 어린이용 자전거>

위의 자전거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일반자전거와 보조바퀴가 달린 어린이용 자전거, 형태적인 면과 컬러에서도 충분히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일반인은 큰 바퀴와 은색프레임 어린이용은 작은 바퀴와 어린이가 좋아하는 컬러가 가미된 프레임 보조바퀴 등 여러 요소들이 일반화된 공식처럼 생각을 했다. 왜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스타일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위와 같은 공식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 a. Function &gt; Fashion.

Function > Fashion 패션보다는 기능에 충실한 자전거.

예전 자전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선수용 자전거’와 ‘일반자전거’, 그리고 ‘요기용 자전거’, ‘산악용자전거’ 등의 자전거는 기능과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자전거이다. 싸이클은 바퀴와 휠의 두께가 얇으며 요기용자전거는 회전축이 다르며, 산악자전거는 안전과 내구성, 산악지형에 맞는 기능을, 단지 기능에 맞게 제작이 되어지고 사용이 되었다. 속도가 더 빠르게, 많은 기술과 요기를 부릴 수 있는 구조와 기능에 충실한 자전거를 찾았으며, 일반자전거는 편하게 탈 수 있는 그 중에 기능을 찾는다면, 오르막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기어가 있는 자전거를 찾았다. 몇 단 기어인가에 대하여 서로 부러워했던 기억이 생각이 난다.



<그림3-싸이클>



<그림4-산악용자전거(MTB)>



<그림5-요기용자전거>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능에 충실하여 외관상 크게 다르진 않다. 기능에 맞게 핸들부의 형태 및 휠의 굵기 내구성, 축, 발 받침대에 따라 틀려질 뿐 형태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점은 찾을 수 없다.

## b. Function + style

앞서 말한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은 기능과 구조에 의해 디자인적인 면에서 다소 한정적일 수도 있다. 기능자전거는 소비자층이 한정적이며 매니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만 사용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전거시장에선 일반인을 타겟으로 해야 자전거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일반자전거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현재는 그 기능에 진화를 하여 자전거의 각 요소에 스타일이 얹어지고 있다. 일반인 자전거와 어린이용자전거의 예를 처음 장에 들었다. 그 두가지의 개념이 서로 매치되며 허물어지듯,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용자전거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바퀴와 화려한 컬러등. 스타일이란 자전거 사용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패션으로 혹은 액세서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한강에 나가 본적이 있나요??

한강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닌다는 부분이 아닌 어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6-미니벨로>



<그림7-스트라이다>



<그림8-클래식형 자전거>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바퀴, 프레임, 안장, 컬러까지 여러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예전 보편적으로 자전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일률적인 형태의 큰바퀴와 프레임을 생각한다. 현재는 자전거에 대하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컬러는? 바퀴크기는? 프레임은? 무게는? 핸들은? 수납공간은? 휴대성은? 등등 하나에서 열까지 여러 이야기가 오간다. 편한 옷차림에 집에 박혀있는 자전거를 끌고 나와 타던 모습에 반해 자전거에 맞는 옷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자전거를 골라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며, 보여주기 위하여,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자전거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 사람들이 많이 찾는 미니벨로의 자전거들은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컬러와 휴대성 부분에서도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운동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디자인이 이쁜 자전거는 소비자들에게 큰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 c. User를 고려한 Style

기능에 충실한 자전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현재의 자전거는 기능에 대하여 충실하지만 그 목적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 User를 고려한 Style 자전거이다. 휴대성과 스타일을 고려하여 바퀴의 크기를 바꾸어 부피를 줄였으며, 바퀴에 맞게 프레임도 변하게 되었다. 여기에 휴대성을 강조한 접는 자전거도 있다. 도난 및 보관, 그리고 휴대성을 강조한 유저들을 고려한 스타일이다. 또한 단지 휴대성과 스타일뿐만 아닌 여성자전거의 user에 맞춰진 부분도 있다. 큰 덩치의 자전거를 여성들이 타고 다닌다면 그건 운동을 위해서 타는 것이다.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유저들을 style에 맞게 디자인을 적용한 부분이다. 그로 인해 이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 d. User Style

요즘 심심치 않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 양복 혹은 캐주얼을 입고 미니벨로 및 스트라이다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의 룩으로써 매치가 되었다. 예전 자전거의 모습에 출퇴근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지금과는 사뭇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자전거에서부터 옷까지 하나의 스타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자전거의 디자인에 따라 자전거를 단지 기능에 맞게 타는 것이 아닌 하나의 스타일으로써 자리를 매김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외의 외적인 요소들 역시 자전거에 맞춰지고 있다. 외적인 요소들은 헬멧이나 의상 등 하나의 룩으로 그리고 스타일로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전거의 스타일 변화에 따라 자전거를 타는 문화와 자전거 타는 유저들 또한 변화가 생겼나게 됐다. 나 또한 미니벨로 혹은 클래식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자전거유저를 보면 나도 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디자인측면에서 큰 변화를 주었으며 새로운 자전거스타일을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1편에선 전반적인 자전거의 스타일의 변화 및 방향을 설명했다면, 2편에선 세부적으로 디자인의 형태 와 외부적인 요소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고자 한다.